

나주농업진흥재단, 서울 서초구에 삼겹살 꾸러미 배송

‘삼겹살 데이’ 맞아 삼겹살 로컬푸드 꾸러미 484세트 판매 “농가에 활력 불어넣어준 서초구청 동료 공직자들에 감사”

전라남도 나주시와 서울 서초구가 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맞아 로컬푸드 교류를 통해 농·축산 농가에 힘을 보탤다.
3일 나주농업진흥재단에 따르면 도·농 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날 서울 서초구청에 삼겹살 꾸러미 484세트를 판매·배송했다.
삼겹살 배송은 지난 해 12월 양 지자체 간

우호 증진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이뤄졌다.
특히 농업분야 협력 사항인 로컬푸드 대도시권 홍보·판촉을 위해 서초구청 공직자들이 이번 로컬푸드 꾸러미 구매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삼겹살 꾸러미는 나주로컬푸드지원센터와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지역 농·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삼겹살 데이 특별 이벤트로 마련됐다.
나주축협 삼겹살(600g)과 상추, 고추, 마늘, 버섯, 대추토마토 등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로 구성된 지난 달 말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2만원에 판매했다. 서초구청 공직자를 비롯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시민 등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어 총 769세트를 판매·배송했다.
나주농업진흥재단 관계자는 “나주로컬푸드 구매를 통해 우리 지역 농·축산 농가에 활



력을 불어넣어준 서초구청 동료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취향에 맞는 꾸러미 상품을 개발해 생산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가 만족하는 로컬푸드 상생 가치를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곡성군 “농번기철 농업기계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곡성군이 지난 3일 곡성읍 전통시장에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순차적으로 오는 10일에는 석곡면 전통시장, 14일에는 옥곡면 전통시장 일원에서 면사무소 직원과 함께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전통시장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농업기계 사용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농작업 중, 도로주행 전 음주운전 금지, 안전수칙 준수 등을 전달했다.
곡성군은 캠페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포했다. 홍보물은 트랙터, 경운기와 같은 동력 엔진 사용요령, 보관요령, 안전사고 예방방법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아울러 농업기계 도로 주행 중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아광스티커나 저속차량표시등(경광등)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11개 읍면사무소에 농기계 안전 사용 방송안을 배부해 주기적으로 마을방송을 실시해 했다.
읍면 주요도로 11개소에는 안전 사고 예방 현수막을 게첨해 운전 부주의,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게첨할 예정이다. 추수철인 8월과 9월에도 농업인들의 왕래가 많은 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 일원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대다수의 농기계 안전사고 원인은 조작 미숙과 교통사고인 경우다. 음주운전 절대 금지, 야간 운전은 자제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곡성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곡성=양해영기자

화순군, 금속배관 교체 및 타이머폭 설치 지원

3월 20일까지 신청·접수...가스 사용 안전 확보

화순군은 가스 사용 안전 확보를 위한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과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3일부터 읍·면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고부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폭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군은 25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구당 설치비용은 27만 5000원으로, 자부담 금액은 5만 원이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은 타이머폭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55세 이상 서민층을 대

상으로 추진된다. ‘타이머폭’은 설정 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가스중간밸브를 잠그는 안전장치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희망하는 사업이 있는 가구는 3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5월부터 시공사가 순차적으로 방문해 설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061-379-3166)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군,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실시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극복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구례 조성

구례군은 지난 3일 구례 5일 시장과 공영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청정구례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을 실천합시다”라는 주제로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하기,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탄소중립 10대 생활 실천 운동 캠페인을 홍보하며 다회용 시장바구니를 전달하며 홍보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기후 위기 등 환경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모든 세대의 안전을 도



모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군, 미래농업 위한 농촌지도 혁신전략 공유

직원 교육 통해 농촌지도사업 업무 역량 강화

담양군농업기술센터는 3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농업 실현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농촌지도 핵심과제에 대한 업무소통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지도사업 3대 전략인 디지털 농업, 참여주체 확대,

현장수요 예측 미래사업 전환과 9개 중점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노형일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장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청년농업인 육성, 치유농업, 농작업 안전 분야 법적 업무와 미세먼지 저감 등 정책업무 영역확대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농업실천, 스마트팜 전환에 따른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적극



적인 농촌지도 자세를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담양군이 농업현장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촌진흥청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